

KBS 사보 특보



KBS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라

2018 남북정상회담
특집호

2018년 4월 27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살얼음판을 걷던 분단국가의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를 약속한 뒤 뜨겁게 끌어안았다. 전 세계의 탄성을 자아냈던 이 역사적인 현장에 KBS가 있었다. KBS는 정확하고 신속한 중계, 깊이 있는 보도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했다.

주관방송사 KBS, 감동의 현장을 기록하다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KBS는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KBS가 준비한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4월 27일 정상회담 당일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는 이례적으로 내·외신 기자 3,0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역대 국가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프레스센터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환송행사까지 역사에 남을 장면들이 생생하게 중계됐고 이는 일제히 전 세계에 속보로 전해졌다. KBS는 국제신호 제작, 구조정실 구축 및 운영 등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이날의 감동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 1TV는 종일 특집 방송으로 편성됐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특보는 숨 가뻐던 판문점의 11시간 59분을 신속하게 전달했고, <뉴스광장>과 <뉴스9>, <뉴스라인> 등 메인뉴스들이 확대 편성돼 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국민의 목소리, 해외 주요 국가 반응을 꼼꼼하게 담았다.

'시청자들의 선택' KBS, 시청률·화제성 1위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KBS는 메인뉴스를 포함해 주요 장면 생중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메인뉴스 <뉴스9>은 시청률 11.1%(닐슨코리아/전국기준)로 각각 8.2%, 5.9%, 5.1%를 기록한 JTBC, MBC와 SBS를 크게 앞섰다.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아침 9시 29분 '남북 정상 첫 악수' 장면 역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KBS와 함께하며 감동의 순간을 나눴다. 이날 하루 온라인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최고의 관심 키워드였다. KBS는 뉴스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특보를 라이브로 전했고, 이날에만 카카오톡 라이브 누적 이용자 1,000만 명, KBS 뉴스 트위터 누적 이용자 수 10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기록이 이어졌다. 뜨겁게 감동했던 2018년 4월 27일, 역사의 순간에 항상 KBS가 함께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KBS의 전문성이 있었다. 이번 현장에는 KBS 특별취재팀과 중계진 등 모두 208명(취재진, 남북교류협력단, PD, 방송기술, 카메라 등)의 제작 인력이 함께 했다. 또한 KBS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방송 장비와 본사와 지역국 중계차 10대, 헬기 1대, 이동차 2대, 바이크 1대도 투입됐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입체적인 중계는 중계기술국의 다년간의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청와대 앞에서 시민과 인사하는 대통령의 모습부터, 파주 통일대교까지 이동차와 바이크, 헬기를 이용해 생생하게 방송했고,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22곳에는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해 좀 더 생생한 영상을 담았다.

이렇게 담아낸 모든 영상은 국제방송 신호 제작 및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구축된 경기도 일산 킨텍스의 국제방송센터(IBC)를 통해 내·외신 36개 방송사에 제공됐다. 영화 같은 남북정상회담의 생생한 순간들을 담은 KBS 중계방송은 KBS 뉴스뿐만 아니라 KBS WORLD 채널을 통해 해외 117개국 시청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됐으며,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포털 등 온라인, 모바일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사람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인터뷰

“KBS인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중계에 직접 참여한 감회는 어떨까.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 오픈스튜디오에서 정상회담 당일 특집 <뉴스9> 중계를 맡은 강릉국 김세경 감독을 사보가 만났다.



준비과정은 쉽지 않았다. 워낙 큰 행사다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어려웠다. 하지만, 남북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나서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는 모습이 중계되는 순간 이런 어려움은 잊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인 만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감동적이었다.



김세경 감독
도라산 CIQ 오픈스튜디오 중계 담당

준비과정에서 외신 인터뷰 의뢰가 왔었다. 대만의 CTI라는 방송사였는데, 다른 방송사가 아닌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인 KBS를 취재하고 싶다고 해 인터뷰에 응했다. 특히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만들어 놓은 오픈스튜디오와 이를 중계하는 KBS만의 중계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같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KBS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여러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번 행사는 본사와 지역국이 힘을 합했기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KBS의 저력을 이번에 느꼈고 앞으로 지역국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
그날 우리는

